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1 상반기 제9호 • 발행 : 한국관상지원단 • 편집 :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http://www.centeringprayer.or.kr>
(우) 138-2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42-2 MODS빌딩 512호 | Tel 02-421-1968 | Fax 02-409-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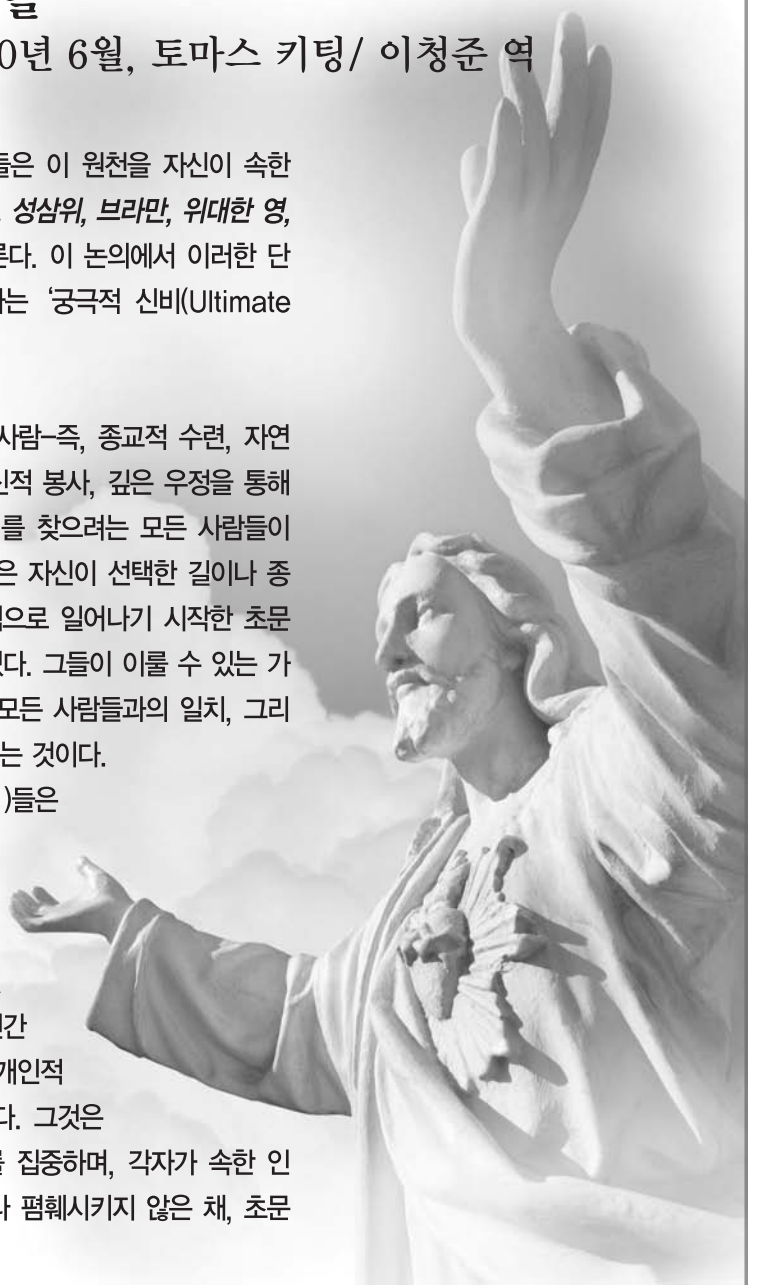
궁극적 신비를 찾는 사람들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010년 6월, 토마스 키팅/ 이청준 역

많은 길들이 '원천'으로 인도한다. 어떤 이들은 이 원천을 자신이 속한 문화나 종교의 기준에 따라, **절대자, 유일신, 성삼위, 브라만, 위대한 영, 알라, 궁극적 실재**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 논의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궁극적 신비(Ultimate Myst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궁극적 신비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즉, 종교적 수련, 자연에 대한 사랑, 과학, 예술, 타인에 대한 헌신적 봉사, 깊은 우정을 통해서 우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실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근원적 탐색 안에서 결합된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나 종교 전통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초문화적 가치의 전례 없는 각성에 공헌할 수 있다.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궁극적 신비와의 일치,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일치, 그리고 우주와의 일치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궁극적 신비를 찾는 사람(이하 '구도자')들은 진정한 영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과 모든 종교와 문화 전통 안에서 관계 맺을 수 있다. 그들은 인간적 가치들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것들과 관계 맺을 수 있다. 이 태도는 결코 절충주의, 즉 종교와 인간적 가치들을 균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신념과 체험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일치시키는 데 주의를 집중하며, 각자가 속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특정 가치를 거부하거나 편협시키지 않은 채, 초문





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일치를 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일치’는 ‘다원주의’ 안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인간 삶의 근원적 가치 체험에서 드러나는 ‘일치’와, 삶의 구체적 상황 안에서 이 가치들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응답에서 드러나는 ‘다원주의’ 안에서이다.

구도자들은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의 신앙은 신념 체계보다 더 깊다. 신념 체계는 다원주의 차원에 속하고, 신앙은 일치 차원에 속한다. 신앙은 인간 본성 자체의 구성 요소다. 그것은 다양한 신념 체계로 분해되기 이전의 궁극적 신비에 개방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독창성을 지니고 진정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충만한 삶에 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초월적 차원의 체험은 이러한 근원적 신앙의 표현이다.

궁극적 신비 탐색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궁극적 신비가

타인들, 그들의 필요, 권리, 상처들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구도자들은 신비 자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 특히 부당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야 한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들이 하느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들이며, 모든 이는 결국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

구도자들이 자신들을 지상의 시민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먼저 인류 전체에게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인종의 특색, 민족주의, 종교 그리고 문화에 맞서거나 파괴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

문화마다 많은 인간적 가치들이 신성시된다. 이것들은 보존시키고 증진시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근원적 일치를 파괴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바야흐로 출현하고 있는 세계 공동체에도 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종교 전통을 따름과 동시에 초문화적 종교 가치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종교 전통들은 인간의 완전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르침과 수련법들을 계발했다. 이러한 공통 요소들을 전체 인류를 위한 궁극적 신비의 선물로서 인정하고 세계 공동체가 그것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들은 여러 인종과 문화와 국가 사이에 이해와 존중과 연민과 친교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들이다. 영적 일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른 모든 차원에서 일치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

구도자들은 일치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다. 현대 세계는 매우 복잡하다. 세계 평화, 기아, 가난 그리고 정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 세계 종교들, 그리고 과학과 의료와 학술 공동체들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세계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 세상에서는 민족주의적 사리사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있다. 합법적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육성하며 보호하기 위한, 자치 국가들의 세계 연합인 유엔의 원래 이상은 하나의 모델로서 계발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

세계 평화라는 대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의가 되었다. 핵무기 시대에, 이러한 대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것도 실현되지 못한다. 동시에 정의에 입각한 평화 구축과 생필품과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세계 프로그램이 그 대의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종교를 갖고서 궁극적 신비를 찾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라는 대의에 공헌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종교의 차이가 폭력과 불의와 타종교에 대한 박해로 이끌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자원을 모아서 세계 공동체에 상호 존중과 연민을 증명해 보인다면, 정치적, 인종적, 민족주의적 분열에 더 쉽게 도전장을 내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종교들이 구도자들을 책임진다. 우선, 세계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진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궁극적 신비를 서로 다르게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깨달음을 가리킨다.

1. 궁극적 신비는 인간 정신이 그것에 대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무한히 초월한다.
2. 궁극적 신비는 인간 실존의 처음이자 끝이며, 원천이자 완성이다.
3. 신앙은 궁극적 신비에 대한 개방과 수용과 응답이다.
4. 궁극적 신비의 자기 전달은 생명의 선물과 더불어, 모든 인간에게 제공된다.
5. 자신의 기본적 선성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 신비에 대한 신앙의 필연적 결과다.
6. 인간 조건은 미완의 상태다. 따라서 무지와 착각과 나약과 고통에 지배받는다.
7. 인간의 온전성, 달리 말하면, 신적 일치, 자유, 변형, 깨달음, 열반-에 대한 잠재력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8. 많은 일을 한 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 신비의 선물이다.

이러한 기본적 통찰들이 인류를 위해 이루어내는 엄청난 영적 자원 이외에, 세계 종교가 공통으로 지닌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들의 영적 여정에 대한 축적된 체험이다. 구도자들은 수세기 동안 영적 여정의 조건, 유혹, 시련, 발전 그리고 최종적 통합을 발견하였고 살아내었다. 초월자에 대한 개인적 체험의 자산은 오늘날 우리의 탐색의 역사적 토대를 증언한다. 그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동시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실제적 지혜의 이 거대한 창고는 구도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세계 종교의 영적 전통에 연결되지 않고서도 경험적 자아와 거짓 자아를 초월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문화적 차이점과 제도상의 구조가 우리 시대에 특별한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구도자는 누구나 내적 죽음과 재생을 겪어야 한다. 아마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것이다. 현대 세계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 즉 위대한 이상에 자신을 바치고, 자기를 변화시키며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몹시 필요하다. 위대한 비전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부여한다. 사막, 대초원, 혹은 바다(이것들은 경전 안에서, 힘들고 지루한 일상생활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를 횡단하다 보면 안식처나 오아시스, 영적 기쁨의 정원, 혹은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위대한 비전을 지닌 사람에게 지독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마치 힘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 자신의 엄청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안식처는 서둘러 밀어내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영적 위안은 만족을 추구할 때는 덧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밀어낼 것인가? 비전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꺼이 비전을 수행할 때 그렇게 된다. 궁극적 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을 넘어서서 실제 있는 그대로의 비전을 포용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비전이 제시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전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싸우다 보면 (길을 가다가 덜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안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망에, 때로는,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것은 죽음과 같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은 부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부수어져야 한다! 영적 여정, 인류에 대한 봉사,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 심지어 궁극적 신비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산산이 부수어져야 한다!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곤경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조건—모든 인간 조건이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만들기보다는 비전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든다—이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하여, 현대 세계는 궁극적 신비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적어도 궁극적 신비의 부재 체험으로 만들어진 절망감 아래 신음한다. 이러한 부재감의 특징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던 구조의 상실 또는 삶 자체의 가치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 말콤 X의 자서전 같은 책을 보기만 하면 된다. 적어도, 고독, 혼란, 무력감, 좌절, 두려움, 분노가 거기에 따라온다. 이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인 신비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구도자들은 우리 시대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자신과 타인을 위한 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뢰뿐이다. 궁극적 신비로부터, 인간 가치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고립감이 우리 시대에 매우 깊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도 격심하고 너무도 완벽한 내적 가난을 수반하기에 ‘죽음’이라는 말 이외에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죽음은 참 자아의 내적 부활로 이끌어 자신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변형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여정은 이기심의 정반대다. 그것은 오히려 무아를 향한 여정이다.

오늘날 구도자들이 강조해야 할 것은 인간 본성의 관상적 차원이다. 그들이 구도의 목표를 해방, 변형, 깨달음, 열반, 신적 합일이라고 하든지 혹은 다른 무엇으로 정의해도 상관없다. 관상적 차원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활동들이 궁극적 신비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그리고 내적 외적



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의 은밀한 활동들에 대한 영속적 감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시점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관상적 차원이 성장하면 우리는 모든 실재의 저변에 있으면서 그것과 함께 가는 궁극적 신비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즉 일상의 감각적 지각에 덧붙여 일종의 네 번째 차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태세를 갖추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상황에도 적합한 모든 기능과 구조를 동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존재가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실제적인 확신을 길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짓는 척도가 된다. 삶의 관상적 차원은 인간이라는 선물에 대한 통찰이며 그러한 선물을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적 선성을 망설임 없이 믿게 해준다. 그것은 또한 다른 모든 이의 근본적 선성을 알아본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을 삶의 완성을 향한 진화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모든 실재의 중심에서 궁극적 신비의 현존을 감지한다. 그것은 더 이상 상징의 의미에 고착되지 않고, 상징을 지나쳐 실제로 나아간다.

인간과 종교 가치를 지탱하는 너무도 많은 구조들이 짓밟혔고 사라져가고 있기에 우리 문화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세속적인 직업과 상황 속에서 궁극적 신비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속적 직업과 상황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인류 전체가 삶의 관상적 차원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관상적 차원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곳에서 인류 가족이 이미 하나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궁극적 신비 안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발견할 것이다.

◀ 후원회원 가입 안내 ▶

한국관상지원단은 향심기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향심기도에 투신하는 모든 분들의 영적 조직망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널리 보급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의 경우 아래 office@centeringprayer.or.kr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2. 납입방법 : 은행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은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되어 오는 소식지가 많습니다.
변경된 주소 또는 E-mail을 알려 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지역 간사 연락처 ▶

사무국장	박 봉 석 세례자요한	010-6630-6649
서울지역	한 명 숙 카타리나	011-9553-2374
인천지역	강 경 애 세실리아	010-4780-7867
대전지역	김 병 연 요셉	010-2948-3852
청주지역	연 인 래 아가다	010-9408-9670
광주지역	최 복 희 테레사	018-690-1097
마산지역	김 명 순 스콜라스티카	010-2363-5702
부산지역	차 순 희 비아	010-3572-4308

※ 각 지역에서 문의 사항이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김명순 스콜라ستي카

청주에서 남편사업 뒷바라지를 하며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유치원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남편과 딸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나누는 순수한 사랑이 위안을 주었고, 수년간 소명으로 알고 지켜온 말씀 봉사를 통해 늘 말씀 안에서 삶을 풀어나갈 가르침을 찾아가며 간신히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2003년 봄,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좀 쉬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된 피정에서 향심기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피정에 참여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또 읽고, 소기도 모임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을 그 분께 의탁했습니다.

2006년도 관상지원단 소식지에 '섬으로의 초대'라는 글로 소감을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의 주변 상황은 많은 변화를 재촉했습니다. 많은 것을 버리고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향심기도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고 떠나가도록 놓아두는 수련이, 혹 반응했더라도 즉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는 수련이, 일상의 삶으로 확대됨을 느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흘러가게 놓아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되고, 내 안의 거짓자아로 인한 숨은 동기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걱정, 두려움, 아픔, 미움들이 결국 이 거짓 자아에서 기인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밀려오는 충만함과 자유로움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나의 가없는 짐을 그 분께 드렸습니다. 존재 대 존재로서의 하느님과의 만남!

그냥 그 분께서 내 생각보다도,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나의 저 깊은 심연 속에 현존하신다는 믿음만으로 하루 두 차례, 나의 가슴과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는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30여년 삶의 토대를 이루었던 청주를 떠나게 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항상 제 안에 함께 계시고, 어느 곳이든 심지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기에...

진해의 작은 성당을 찾아내고 근처에 집을 풀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과도 같았습니다.

향심기도는 제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됨 없이 그분을 향한 사랑만으로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는 성경속의 여인의 심정으로, 허락해 주신 이 지상에서의 생(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며,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봉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는 그 분 사랑에 대한 저의 작은 응답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찾아서

고명숙 마리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 놓아야 하
는 것이 무엇인
가를 찾았습니다.

경청하면서 침묵하면서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놓아처럼...

사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혀져 듣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아집, 나의 편견, 자기주장으로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꽤나 주고 살았음을 향심 기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의 언행의 일부분이 플러스된 적도, 마이너스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닥쳐진 말을 통한 괴로움, 아픔, 이런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희석시키며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향심 기도를 통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삶의 질을 좀 더 그분께로 일치할 수 있도록 내가 운전하던 그 자리를 그 분께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서 가야할 길,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다 기웃거리려 찾은 길에서 동냥도 해보았지만, 어느 날은 커다란 바구니에 한 소쿠리 담아 오고, 어느 날은 빈 밥그릇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보기에 성실히 참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침묵하며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하느님 말씀 경청하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미세한 작은 모기처럼 장애물인 불편함조차 분심이었음을...

감사합니다! 피정을 통해 나를 찾아서의 인도조차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하느님은 저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저에게 준 양식은 풍요의 소출을 한 아름 안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팀원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수녀님의 하느님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서 잘 사용하도록 그리고 잘 되새기며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시편 46,11)

멈춤 속 깊이 당신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네”(시편 34,5)로, 일심의 메시지로 살겠습니다. -아멘-





피정일기

천정철 세례자요한신부

죄인임을 자각할 때 왜 그리 마음이 아픈 것일까?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여서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인가? 죄인임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책하면서 계속 시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바쳤다.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피정 3일째 10. 29. (금)

30분씩 세 번의 기도를 오전에 두 번 하게 되었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더 고요에 몸이 익어가는 듯했다. 잠이 처음에는 쏟아졌지만 점점 더 줄고 고요하게 머무는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이 오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히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라.

오후, 기도가 깊어가면서 내가 마주보고 싶지 않은 것, 나의 죄의 삶이 떠올랐다. 내 죄가 내 앞에 떠오르면서 아프게 다가왔다. 주님 앞에 울고 싶었다. 제가 당신 마음에 상처를.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숨겨진 탐욕과, 교만과, 욕정과 자기과시, 위선, 거짓 속에 살아왔는가? 죄를 사제신분으로 포장하고 아름다운 그럴듯한 강론으로 덮어버리고 거룩한 척 보이는 모습으로 위장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거짓으로 살아왔다. 무엇이냐 되는 냥 오만함이 가득하다. 그냥 죄인일 뿐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피정 5일째 10. 31. (일)

고백성사.

오전 기도까지 끝나고 식사하고 쉬고 있는데 고백성사를 보도록 이끄심을 느꼈다. 하느님께서 나의 거짓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다. 오후기도 시작 전에 성당에서 기다리다 신부님께 성사를 보러 들어갔다. 무릎을 꿇는데 햇살이 비쳤다. 성령의 은총의 햇살이 나를 따듯히 비추시고 감싸는 듯 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마냥 눈물을 삼키며 울고 있었다. 한참을 눈물을 삼키고는 내가 교만하고 거짓과 위선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했다.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어떤 내적인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만 흘리는 복음서의 죄 많은 여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부서진 마음으로 은총의 따뜻한 어루만짐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이 얼마나 깊은 내면의 치유인가? 인간의 깊은 내적 분열, 어떤 심리학도 꿰뚫어볼 수 없는 왜곡의 그림자를 하느님의 은총은 너무나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신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용서받은 죄인.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냥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향심 기도와 함께하는 나의 여정

김순년 글라라

향심 기도를 만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되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하던 중에 향심 기도를 만났고, 1박 2일 소개 피정을 받던 날 감사와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우 같은 분노가 올라와 어쩔 줄을 모르며 밤을 새우기도 했구요.

1년을 기도하는 동안 화해와 용서가 적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십 년 전에 서로 상처주고 헤어진 이웃 언니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날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축제였습니다.

몇 년 안가 청년가 될 것 같은 기분이라구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지낸 3년은 향심 기도의 봄이었어요.

3년쯤 지나면서 부러 처처히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면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맛도 사라지고 매일미사도 의지를 내서 가야 했고,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다시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내 고향에 돌아 온 푸근함과 따뜻함, 친 동기간처럼 맞아주는 향심이들, 사랑이 있는 보금자리 향심 기도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나의 거짓 자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삶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던 내가 향심이들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나눔으로 이제는 직면하는 것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향심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기도 그룹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튼튼튼튼 걸어갈 것입니다.





2박 3일 소개피정을 마치면서

천경희 아드리아나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네!”
이 문을 어찌 열어드릴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 내면으로, 내 안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지나오면서 여기, 피정의 집에 오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문 밖에 계시는 당신을 보고 ‘아, 내가 문을 열지 않았구나! 나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문을 열면 내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될 텐데도, 또한 나의 어리석음이 문을 닫아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나는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당신의 현존하심과 활동하심에 동의하려고 하니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하는 저의 머리가 방해가 되니 그냥 당신 안에 이런 저런 것들까지도 다 그대로 가지고 머물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며 또 다시 방석 위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의 방법이나 효과가 아니라 ‘기도와 삶’ 또는 ‘기도하는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심어주신 수녀님 덕분에 이런

배짱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기도 시간이 흐르고 파견 날 아침,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서 나는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게 되었다.

“잘 보이려고 꾸미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그냥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 당신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 숙제 같았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열쇠를 마치 내 손에 쥐어 주시는 것 같았다. 많이도 말고 딱 한 가지만, 감추고 싶었던 것을 당신께 드러내는 것이 당신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마음을 여는 많은 열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를 나는 마지막 날 미사에서 찾게 되었다!

이 피정은 침묵피정이 아니었지만, 나에게에는 참 신기하게도 그 어느 때 보다 내적인 침묵으로 고요했던 시간이었다.

2박 3일 피정을 마치며 관상의 ‘삶’으로 기도를 나누어 주신 수녀님과 아름다운 평신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어르신들의 진솔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김경순 아네스 수녀

조금 있으면 대림시기와 함께 성탄을 준비한다. 성탄을 준비할 때면 나는 희랍교부들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토마스 키딩 신부는 ‘네 가지 차원의 나’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 차원은 ‘일상의 심리적 인식차원의 나’다. 나는 이것을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나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의 배우자요, 1남 1녀의 엄마요 등등... 이러한 인식차원의 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나가 있다.

둘째 차원은 ‘개성이나 성격 차원의 나’라고 토마스 키딩은 말한다. 나는 이것을 ‘심리적’ ‘기질적’ 차원의 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는 유전적 요소, 어려움에 처할 때 반응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이는 표면적이고 역할적인 자아보다는 한층 더 깊은 ‘내면의 자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내면의 자아는 성장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특정한 행복추구와 연결되어 형성된다. 아마도 첫째와 둘째 차원의 자아를 “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셋째 차원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 닮음”인 “참 자아”이다. 나는 이것을 ‘존재론적’ 차원의 “나”라고 말하고 싶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 때문인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모상’ ‘너’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차원의 삶이 요청된다. 토마스 키딩은 ‘참 자아’를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아로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유일무이성이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성화 되는 영원한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향심 기도를 할 때 첫째와 둘째 차원에서 관계 맺고 살아온 생각들, 기억들, 감정들, 계획들을 놔두고 ‘참 자아’와 더 깊은 ‘신적현존’을 향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여전히 생각이나 말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잡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룩한 단어를 통해 하느님 현존에 머물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싱싱하게 되듯이 우리의 참 자아는 생기를 얻어 하느님의 모습인 참 자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어떤 날은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들로 마음이 산란해질 때가 있다. 이때는 안전/ 생존인지, 애정/ 존중인지, 힘/ 통제의 욕구의 문제인지를 분별하여 하느님이 나의 참된 안전이고 하느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느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다. 혹은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는 복음의 가치에 비추어 보거나, 하느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토대로 한 정의를 선택해야 함으로서 참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차원은 참자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자아를 말한다. 이 자아는 하느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구분 되는 자아다. 토마스 키딩은 이를 ‘신적 자아’ ‘그리스도 의식’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이 되는 것’이라 부른다. 현대 신학자 Raimon Panikar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깊은 자아로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바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갈라2,18-20)라고 표현했다.

몇 년 전 향심 기도 후에 성경말씀을 묵상할 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16,13) 하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16,15)라고 물으시는 구절을 읽을 때였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나다(I AM)”였다. “예수님이 '나'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당시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깊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 차원의 나를 “하느님의 나” “가장 깊은 나” 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관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나’ 자신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 선입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몸에 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온 나의 모습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능적 혹은 역할로서의 성공이나 실패를 토대로 한 자아상이거나, 자신의 성격이나 삶의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일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참 자아’ 와 더 깊은 나로서의 ‘신적인 자아’를 의식화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실재의 파동’이요 ‘진동의 지엽적 표현’이다. 앤쏘니 드멜로 신부는 이것을 “춤꾼의 춤”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담하게 승복할 수 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와 섭리에 승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서도 살아가실 것이다.



향심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서!

이윤숙 율리아

후속 강의 시간이었다.

엄무광 선생님께서 ‘하느님과 관계’ 강의 중에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때 느껴지는 그분의 상
기된 표정과 음성, 들뜬 마음, 설렘. 아무튼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소개를
하시는데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단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데 저
에게는 왜 멀고 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목마름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말없이 간절하면서도 나지
막하게 아~~~~빠~~~ 하고 불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고는 눈물이 주르륵 ...

탕아는 어느새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50년을 넘게 방황한 이 딸을 기다림에 지칠 만도 하지
지만 단 한 마디도 묻지도 않고 그저 안아 주시는 아빠! 너무나 포근했어요. 그 후론 아빠 앞에서는 비
밀이 없게 되었어요.

당신께서 들려 주시는 언어는 침묵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보여 주는 사랑과 실수를 통해
서 50년의 성곽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저에게 많은 은총을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酒(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의 편만 들어 주었던 남편을 동반자로 찾아 주셨습니다. 단주와 더
불어 기도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은 눈높이의 초점을 맞추기에는 서툴러 아옹다옹 끝에 서로
의 아픔의 근원을 인정하며 사과도 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알게 됨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푼수인 저로서는 창조 질서에 동참하고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동분서주 하는 동반자와 주님
이신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하루 행복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 힘들어서 서로에게 화를
내는 삶에서 믿어 주고, 기다려 주고 칭찬해 주는 삶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과제는 아직도 어렵지만
지금처럼 그냥 당신만 따라 가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수련 또 수련하렵니다.

주님!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기에는 너무 무지하고 무딘 마음이니 일깨워 주시고 영육간의 상처 치
유해 주시리라 믿으며 마지막으로 엄무광 선생님께서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해맑은
모습 다시 뵙고 싶습니다.



향심 기도 수련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들!

이근미 미카엘라

세례 받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현실에 발목 잡혀 헤어나지 못한 나에게는 2년 전 향심 기도 워크숍은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이를 본당 주임 신부님의 은퇴 기념 유언으로 생각하고 남기신다는 말씀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찼지요.

오랫동안 일을 하며 키워온 시기 · 질투 · 경쟁에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분, 20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본당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은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한대지요. 나에게는 두 배, 아니 세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져서 었을까요? 기쁨이 배가 되어 행복해졌고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교우들도 사랑스럽게 보였고 이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노신부님의 잔소리로만 들렸던 강론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면서 그 동안의 강론 말씀에 소홀히 대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떠나가셨지만, 의지할 곳 없는 고아된 심정으로 오로지 향심 기도에만 푹 빠졌답니다. 향심 기도의 ‘향’자만 나오면 기웃거리려보기도 하고 교육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쫓아다니던 세월이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처음 일 년 동안은 일을 하면서 향심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매달렸지요. 새벽 일찍 나가야 할 때는 정말 더 자고 싶은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자명종이 울리면 일어나 20분을 채우기는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졸음 반, 기도 반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의 시작이 지금껏 나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일 년이 지나자 열매라고 하면 열매라고 할 수도 있을 변화가 왔습니다. 장부는

적극 나를 이해해 주고 변화가 왔네요. 욕심에 찌들어 ‘나’ 로만 가득찼던 내 마음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울림이 왔습니다. ‘이젠 됐다. 미카엘라야, 그만 내려 놓아라’ 하신 울림이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헤어지지 못한 나에게 단비 같았습니다. 모르면 부딪치고 보자는 단순함으로 다가가고 넘어지고, 또 다가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갈증은 더 해 가고 성경 쓰기, 영적 독서, 평화 방송 시청으로 하루해가 아쉽기만 하네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 국제관상지원단 홈페이지 소개

<http://www.contemplativeoutreach.org/>



CONTEMPLATIVE
OUTREACH

비 전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시편 46.11]

**관상지원단의 목적은
향심 기도 수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서로 지원하는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기 10.27)



2011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 피정 · 후속 및 심화 피정 · 영성 심화 ▶

피 정	일 자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4회 소개피정	3월 16일(수) 3월 18일(금) 3월 23일(수) 3월 25일(금) 오후 2시 ~ 5시	광주 초본당	천정철 신부 이준용 신부 김영재 형제 정규완 신부	018-690-1097	누구나
1일 소개 피정	3월 14일(월) 9월 5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돈암동 골롬반 센터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0-4511-9825	
	5월 7일(토) 10월 29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글라렛 선교센터			
	8월 15일(월) 오전 9시~오후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차후에 공지함.	018-690-1097	
1박 2일 소개피정	2월 26일(토) ~ 27일(일) 9월 24일(토) ~ 25일(일) 12월 10일(토) ~ 11일(일)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후속 강의 4회	4월 16일(수) / 18일(금) 4월 23일(수) / 25일(금)	광주 중흥동 성당	차후에 공지함	018-690-1097	소개 강의 및 피정을 받은 분들
	9월 10일(토) / 11일(일) 9월 24일(토) / 25일(일)	광주 중흥동 성당	차후에 공지함	018-690-1097	
6주 후속 강의	〈상반기〉 3월 18일, 25일 4월 8일, 15일 4월 22일, 29일- (6회) 5월 13일, 20일, 27일 6월 3일, 10일, 17일- (6회) 매주 (금) 오전 10시~ 12시	성북동 글라렛 선교센터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0-4511-9825	
	〈하반기〉 9월 9일, 16일 9월 23일, 30일 10월 7일, 14일- (6회) 11월 4일, 11일 11월 18일, 25일 12월 2일, 9일- (6회) 매주 (금) 오전 10시~ 12시				
2박 3일 후속 심화피정	11월 11일(금) ~ 13일(일)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영성 심화	〈상반기〉 3월 22일 4월 5일, 19일 5월 3일, 17일 6월 7일 - (6회) 〈하반기〉 9월 20일 10월 4일, 18일 11월 8일, 15일 12월 6일 - (6회) 첫째/셋째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격주)	성북동 글라넷 선교센터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0-4511-9825	항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	---	-----------------	--------	-------------------------------	------------------------

◀ 월 침묵 및 특강 · 월 모임 · 새신의 날 · 전국 모임 · 인간 조건과 영적 여정 · 심화 및 집중 피정 ▶

피 정	일 자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침묵 피정	3월 29일(화) 4월 26일(화) 5월 24일(화) 6월 28일(화) 9월 27일(화) 10월 25일(화) 12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돈암동 골롬반 센타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1-4511-9825	항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1일 특강	〈오후특강〉 2월 14일(월) 5월 16일(월) 6월 27일(월) 9월 19일(월) 10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1일피정〉 3월 7일(월) 7월 18일(월) 11월 7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창원 사파공동성당	이청준 신부	010-9552-7315 010-2363-5702	
1일 피정	5월 예정	광주 지부	차후에 공지함	018-690-1097	
월 모임	4월 2일(토) 5월 14일(토) 7월 9일(토) 9월 8일(목) 10월 8일(토) 11월 12일(토)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전국 모임	6월 11일(토) 오후 3시 ~ 6월 12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광지원단 교수진	02)421-1968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새신의 날	3월 12일(토) 9월 3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	
새신의 날	11월 7일(월) 오후 10시 ~ 오후 4시	광주 지부	차후에 공지함.	018-690-1097	
인간 조건과 영적 여정	3월 18일(금) 오후 3시 ~ 3월 20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2)421-1968 한국관광지원단	누구나
	7월 8일(금) 오후 3시 ~ 7월 10일(일) 오후 3시	우이동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11월 25일(금) 오후 3시 ~ 11월(일) 27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041)733-2992~4	
1박 2일 심화 피정	4월 11일(월) ~ 12일(화)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10-9552-7315 010-2363-5702	향심 기도 후속강의 및 피정을 끝마친 분들
2박 3일 심화 피정	12월 5일(월) ~ 7일(수)	차후에 공지함.			
3박 4일 집중 피정	11월 21일(월) ~ 24일(목)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1-4511-9825	향심 기도 심화 피정을 하신 분들
4박 5일 집중 피정	8월 8일(월) ~ 12일 (금)	차후에 공지함.			
6박 7일 침묵 피정	6월 17일(금) ~ 23일(목)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9박 10일 집중 피정	4월 26일(화) ~ 5월 5일(목) 10월 25일(화) ~ 11월 3일(목)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광지원단 교수진	02)421-1968	향심 기도 3 박 4일 이상 피정을 끝낸 분들



소기도 모임

지역	장 소	일 시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서 울	송파동 모임 (전 사무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성공회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새길교회(4)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최성림 목사	011-741-0252
		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③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④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인 천	구월1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애 세실리아	032) 463-7867 010-4780-7867
	연수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이미혜 엘리사벳	010-5663-3481
경 기	(수원)분당요한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명옥 안젤라	011-9726-3054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주호자 세노리나	011-9000-2150
	(용인)동백제 1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이호윤 안젤라	010-3219-9794
	(의정부)용현동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박선화 루도비까	010-2332-1816
	(의정부)호원동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이혜선 세실리아	010-8731-8655
	(남양주)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군포)예수랑 교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희 목사	010-7963-0091
	*(고양)살림 교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 912-4930 010-8520-4935
강 원	강릉 초당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윤영희 마리아	010-2274-1397
대 전	내동 성당(서구내동)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네스	042) 533-6649 010-6630-6649
	도룡동 성당 - 유아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김미현 마르첼리나	010-4525-4212
	궁동 성당 (유성구 궁동)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황경자 데레사	042) 861-0281 010-6888-0281
	복수동 성당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문숙희 데레사	010-6756-7990
	월평동 성당 - 유아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남옥희 엘리사벳	019-479-7008
	진잠동 성당 - 성체 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최순자 아나다시아	011-456-1406



소기도 모임

충 북	북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신현애 아나다시아	010-5463-3088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우영옥 루시아	043) 296-0832 010-5073-8520
	사직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최소자 카타리나	043) 272-8779 019-477-4040
	신봉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43) 266-3540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43) 295-0633 011-9844-0633
	청산 성당	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네스	043) 733-2795
		②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후	박춘임 요안나	010-6480-8028
	미원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천경민 아가다	043) 286-2060 011-9827-2060
	운동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정명자 라우렌시오	043) 254-3387 010-8254-3387
부 산	충주 지역 _ 자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권인숙 레지나	043) 843-3133 010-5604-3439
	좌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정예규 아네스	051) 743-0039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송석미 스텔라	010-8006-8286
		②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진성임 데레사	010-8314-3717
		*③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2시	차순희 비아	010-3572-4308
	활천 성당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2시	조혜란 안젤라	010-4859-9633
	새 예루살렘 공동체	①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 ~오후 3시	왕영수 신부	052) 239-1249 011-488-1239
		*②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남산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하연희 로사	010-3198-2046
		②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권정례 빅토리아	010-9838-5442
대 구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차순희 비아	010-3572-4308
	만촌1동 성당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8시 30분	정향미 레지나	053) 754-9496 010-2062-9496
경 남	성토마스 성당 - 3층 선교사무실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후	이수복 삼손	011-537-8344
	(진주)봉곡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은숙 올리아	055) 746-8827
	(진주)상평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한성자 아벨리나	055) 755-8869 010-8252-8869



소기도 모임

경 남	(진주)하대동 성당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황혜순 율리아나	010-9667-8944
	(진주)젊은예수의 집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월 1회)	김종봉 요한 신부	055) 746-0226 011-9335-7022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진숙 안나	010-2004-9461
	(거제)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여형구 레지나	017-296-0370
	(거제)옥포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정희 데레사	017-853-1835
	(진해)용원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명순 스콜라스티카	010-2363-5702
경 주	성동 성당_성당 2층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광 주	중흥동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김경시 아우구스티누스	062) 264-8633 010-7688-8633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정분남 요안나	062) 512-7762
		③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조영학 요셉	062) 527-6737 017-602-0247
		④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임희숙 피데스	062) 264-5329 016-698-5309
	염주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홍화강 카타리나	062) 372-3680 016-9655-3681
	학운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동님 스텔라	062) 222-1493 016-8845-1493
	풍암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자 데레사	062) 681-5942 010-3080-5942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안은정 발렌티나	062) 973-6380 016-9885-8114
	쌍촌동 성당	①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원자 다비다	010-4608-2700
		②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인헌프란치스코	010-4611-4303
	금호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박금덕 다리아	062) 453-9127 010-9944-9127
	오치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윤옥숙 벨라멧다	062) 575-5520 010-3857-5803
담 양	창평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신영애 안나	061) 383-8840 010-2619-5280
순 천	조곡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경림 카타리나	016-488-6593
	조례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박희숙 유스티나	010-4135-1835
	저전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희남 프란치스카	061) 908-0120 010-9659-0120



소기도 모임

여 수	선원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윤미옥 테오도라	061) 681-5146 010-7603-5146
	소호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민여지스테파니아	010-5681-7609
광 양	광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진수 율리아	061) 799-5766 010-9015-5766
캐나다	(토론토) 성김대건안드레아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신 헬렌	905-709-0414 95-886-1147
		②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김귀란 안나	416-868-6821 416-878-3921
		③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황보태영 요셉	905-709-0414 416-319-4321 416-785-3527
	(토론토) 예수 성심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이 그레고리오	416-620-0047 416-347-7446
	(몬트리올)순교자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하종원 스테파노	514-762-4879
		②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홍준기 루가	514-426-5887
	(오타와) 한국 순교자 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임동철 토마스아퀴나스	613-422-0821
	(밴쿠버) 성 김대건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김종갑 베드로	604-309-6434
	(밴쿠버) 씨리 본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고행순 카타리나	H)604-461-0862 C)778-996-8651
		②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정태희 빈첸시오	B)604-576-2872 H)604-5-7-9659
	(밴쿠버)성 유대철 공소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민인가 세라피나	C)604-506-5249
	(밴쿠버) 성 정하상 공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김혜경 로사	H)604-630-2480 C)604-999-3422
	(밴쿠버) 에보츠포드공소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조영민 가브리엘	H)604-755-9357 C)604-375-9659
미 국	(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정태승 토마스	H)925-964-9248 C)925-683-2047
	(타코마) 성 정하상바오로성당	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이해옥 아네스	253-473-2217
		②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박혜성 켄마	253-229-3437
		③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김금선 안젤라	253-312-4748
	(타코마) 올림피아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김중희 헬레나	H)360-438-3993 C)360-250-0740
중 국	(북경) 한인 공동체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정 루시아	북경)6471-2457



2011년도 각 지역별 소식



◀ 한국관상지원단 ▶

2010년은 한국관상지원단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관상지원단 홈페이지(www.centeringprayer.or.kr)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12월 3일 사무실을 송파동에서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였다. 그동안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신 김동한 프란치스코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식 중이던 사무국장으로 박봉석 세례자 요한 형제가 이사회에서 선임되었고, 부산 지역 차순희 비아 자매(전임 간사_장경옥 막달레나), 마산 지역 김명순 스콜라 스티가 자매(전임 간사_한성자 아벨리나), 대전 지역 김병연 요셉 형제(전임 간사_박봉석 세례자 요한)가 새로 선임되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전임 간사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관상지원단 소식지는 매년 2월에 발행되어 우편이나 메일로 전달되니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구독 희망자는 주소를 한국관상지원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향심기도 전국모임이 6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2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각 지역별 소식 ▶

〈서울〉 ****
홈페이지 www.hyangsim.com을 이용하여 서울지역 소기도 모임 소식을 알립니다. '성북동 씨튼 피정의 집'에서 향심 기도 소개 강의 및 후속 강의, 영성심화, 월 침묵 피정 등의 강의를 씨튼 피정의 집 공사 관계로 2011년 3월부터는 '돈암동 골룸바 센터'와 '성북동 글라넷 선교센터'에서 김경순 수녀의 지도로 이뤄집니다. 피정일정은 관상지원단 소식지와 홈페이지 www.centeringprayer.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
인천지역에서 향심 기도 소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혼자서 향심 기도를 수련하고 계신 분들은 인천 지역 간사(강경애 세실리아 H.P : 010-4780-7867) 또는 한국관상지원단(전화 : 02-421-1968)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
2010년 11월 27일 김병연 요셉 형제가 대전지역 간사로 선임되었고, 2011년도부터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월 모임을 할 예정이다.

〈청주〉 ****
2010년 2월 둘째 주 쇠신의 날에 장미자 데레사 자매의 강의를 있었고, 충주 지역의 소기도 모임이 탄생하였다. 2011년도의 일정은 차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립니다.

〈마산〉 ****
2010년 사파공동성당에서 이청준 신부의 강의로 7회의 월례 특강을 실시하였고, '향심 기도과 렉시오 디비나 피정' 1회, '향심 기도 피정'을 3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진해 용원 성당'에서 소기도 모임이 새로 탄생되었고, 2011년도에도 이청준 신부의 월례 특강 및 피정이 있을 예정이다.

〈부산〉 ****
2010년 7월 차순희 비아 자매가 부산 지역의 새 간사로 선임되었고, '민락 성당'에는 소기도 모임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12월 7일 남천 성당 112호실에서 기도 모임 봉사자 첫 모임이 있었다.

2011년도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남천 성당 112호실에서 소기도 모임 봉사자 및 향심 기도 회원 모임이 있고, 소개 워크숍과 후속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울산 및 부산 지역의 향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공동체'에서 왕영수 신부의 지도로 매월 마지막 주일 '쇄신의 날' 및 매주 주일 '향심 기도과 렉시오 디비나' 및 미사가 있다.

〈광주〉 ****
2010년도에는 정규완, 이준용 신부, 장미자 자매, 김영재 형제가 초본당, 오치동 성당에서 신자 및 교리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강의 및 피정 그리고 후속 강의를 했으며, 중흥동 성당에서는 정태현 신부, 김중순 수녀, 엄무광 형제가 성경, 인간조건, 향심 기도에 대해서 초청 강의를 하였다.

정규완, 천정철 신부, 장미자 데레사 자매, 김영재 형제가 광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 봉사자 교육을 하였다.

광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 정규완, 천정철 신부의 지도로 매월 쇠신의 날 행사를 가졌고, 지부 쇠신의 날은 김중순 수녀, 천정철 신부가 봄, 가을로 2회 실시하였다. 매주 월요일에는 향심 기도의 발전을 위해 40회의 기도 모임을 가졌고, 현재 20여개의 기도 모임이 있다.

2011년도에도 소개 피정 및 후속 강의와 향심 회원들을 위해 피정, 봉사자 교육 및 쇠신의 날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